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

이 은 주*·박 영 숙**

I. 서 론

간호(nursing)는 간호실무(practice, art)와 간호과학(science)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간호의 특성은 개별 학문으로서 간호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한 간호학이 가지는 딜레마를 내포한다. 이는 간호학이 발달되어 온 역사에서도 드러나며 앞으로 간호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간호가 “학”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호학적 지식은 그 자체가 실무에서 대상에게 적용되어야만 그 존재 의의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학문이 아닌 실제학문 혹은 가치가 부여된 응용학문으로서 간호학의 발전은 “학”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장애로서도 작용하여 왔다.

간호학은 발생에서부터 순수한 지식의 추구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실무에서 필요에 의해 지식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 간호가 사적인 일에서 직업적인 일로 자리 잡고, 직업적 성과를 위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에는 주로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고유의 지식을 개발하기 보다는 인접 직업이나 학문(특히 의학)에서 사용되어 오던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실무에서 지식의 필요성이 간호

학에서 지식 개발의 자극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에서 지식의 필요가 긴급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으로부터 지식이 도입되었고 간호현상에 그 지식이 적합하고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비판도 없이 수용하게 되었다(Munhall & Oiler, 1986).

간호학의 독창적인 지식체의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간호학 이론들과 메타이론들이 등장하고 이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간호학자들 간에는 기왕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고 있다.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혼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중에 하나는 용어에 관한 것으로 방법론(methodology)과 방법(method)에 대한 구분과 혼용이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어떤 학문의 성격에 대한 철학 혹은 인식론적 바탕 위에 지식의 습득 방법이나 지식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메타이론으로 이성(logos)에 근거를 두고 있다(최양부, 1990; Polkinghorne, 1983). 방법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구설계 디자인, 자료수집, 측정도구, 자료의 통계처리 등을 포함한다(Polkinghorne, 1983).

간호학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한 방법론 즉 경험분석론으로 실증주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호학계에

* 한라전문대학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는 간호학의 독자적인 지식체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험분석적 방법론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방법론을 통해 관심있는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탈실증주의 입장인 인간주의(humanism) 혹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이론 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주의와 과학의 발달이 중세 기독교의 횡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같은 목적에서 시작하였으나, 과학의 발달과 그것에 수반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미친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인간주의자들의 반항(김동일, 1991)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과학이 그 성립 초기에 자연주의(naturalism)를 수용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왔으나, 사회현실은 자연현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적 방법이 아닌 독립된 방법에 의해 탐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출현, 즉 실증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는 인간주의적 입장의 대두 경향과 유사한 것이다.

현재 간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어떤 간호학자들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질적 그리고 양적 방법론들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에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론들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연구 내에서도 다른 두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 고에서는 어떤 방법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주장들이 간호학의 지식축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호학이 발전해 온 궤적을 간단히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며, 간호학의 지식형성을 위한 방법론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간호학의 발달 과정

병들고 허약한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된 간호 행위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점차 가족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한 기부인들의 자선 사업으로, 그리고 중세에는 종교적 자선이나 선교 행위로 나타났고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비종교적인 고용 간호사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였다(이영복, 1991). 19세기 Nightingale의 언행과 저서 "Notes on Nursing(1859)"은 간호가 직업으로서 정착하

고, 직업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때가 되어서야 주로 경험이나 상식에 의해 행하여 오던 간호행위를 위해 면밀한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계적 기법이 도입되어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이, 임 및 박, 1991).

Nightingale 사후, 간호는 유럽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발전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간호계는 급격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 교육기관과 간호학자를 육성하였다. 1909년에는 Minnesota 대학교에 4년제 간호학과가 설립되었고, 이후 여러 간호학과(대학)들이 설립되었다(이영복, 1991). 20세기 초반이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가술이 개발되고 전문화되어 간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간호학의 연구는 사례연구 형식의 간호 연구법이 192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연구문제는 주로 간호교육이나 행정에 관한 것이었다(이, 임 및 박, 1991).

1950년대에 대학원 교육과정에 연구방법에 대한 강좌가 많이 열리게 되고, 이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결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간호연구의 전통을 마련하게 되었다(Polit & Hungler, 1983). 1952년 Peplau는 Sullivan의 정신의학 이론에서 간호를 인간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로 규정하는 최초의 간호이론을 개발하였으며, Henderson과 Harmer(1955)는 욕구이론에 근거하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전반기에 주로 욕구이론이나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여 Abdellaha(1960), Hall(1962), Orlando(1961), Weidenbach(1964), Treblebee(1964)가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이들은 간호를 결과라기 보다 과정으로, 내용이라기 보다 상호작용으로 보고자 하였다(Meleis, 1986). 60년대 후반기에는 그 시기에 유행하던 일반체계 이론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Levine(1966), Johnson(1968), King(1969)은 von Bertalanffy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보는 주장들을 제시하였다(Torres, 1986)

간호교육이나 행정의 문제가 아닌 환자간호 자체가 주 연구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나 간호이론이 교육되기는 하였지만, 이론을 실제에 도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지 못한 많은 임상간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론이 실제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Meleis, 1986).

간호 지식체의 개발을 위해서 1967년(Symposium on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과 1968년(First & Second Nurse Scientist Conference on the Nature of Science in Nursing)에 열린 일련의 심포지움은 간호학 발전에서 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Dickoff와 James(1968) 그리고 Dickoff, James와 Wiedenbach(1968)는 간호 지식체의 발전을 위해 요인 추출, 요인 연관, 상황 관련, 그리고 상황 생성 이론의 단계를 제시하고, 실무과학으로서 간호중재(실천)를 위한 연구와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 실증주의자의 전통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진리라는 견지에서 과학적 진보를 사정하고 과학에 대한 생산물 지향(product orientation)을 의미하였다(Silva & Rothbart, 1984). 한편 James와 Dickoff의 간호학에 대한 이런 의견 피력은 많은 간호사들에게 간호의 독자적인 이론개발의 가능성과 그리고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학자들에 의하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Meleis, 1986).

이런 일련의 회합에서 간호학자들은 간호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쟁은 간호학은 순수과학인가 응용과학인가 혹은 간호이론은 빌려온(borrowed) 이론인가 독창적(unique) 이론인가(이어야 하는가) 간호이론은 일원화(unified)되어야 하는가 다원적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Crawford, Dufault & Rudy, 1979).

간호학자들은 간호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유한 지식체를 가져야 하며 간호이론이 실제에서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는 동의하긴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문에서 개발된 이론에서 연역하여 간호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간호학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간호학의 독자적인 지식체는 간호 관점에서 보여진 현상들을 기술하는 것이라는 양론이 계속되었다. 또 다른 논쟁은 간호이론이 단일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과 간호현상의 복잡성에 비추어 단일 이론의 구상은 간호 실제에서 검정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지식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수 이론들이 간호 현상에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논쟁은 또 다시 간호현상에 적절한 간호 지식은 어떻게 개발되고 검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낳았다. Putnam(1965)은 합리적, 연역적 접근법이 Simon(1971)은 귀납적 접근법이 간호 지식체의 개발에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Murphy(1971)와 Jacox(1974)는 이 두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며 그것들이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하여 연역이나 귀납이나 하는 논쟁을 일축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의 이러한 논쟁들은 간호학의 이론과 검증에 관련한 메타이론의 등장을 촉진하였고, Jacox(1974)와 Hardy(1974) 등에 의해 고도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논리 실증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Silva & Rothbart, 1984).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발표되었던 Johnson(1974), King(1971) 이론들은 더 정교하게 되었고 Orem(1971), Rogers, Roy, Neuman 등의 이론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Roy(1970)이론은 생리학자인 Helson의 영향을 Rogers(1970)와 Neuman(1972)이론은 일반체계이론과 다른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의 이론들과 60년대에 발표된 이론들 중에서 특히 일반체계이론에 입각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체계이론의 기초가 모든 학문이 물리학으로의 환원을 표방하였던 것처럼 이 이론들도 환원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Rogers(1970)이론은 일반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나 다른 이론들보다는 환원주의적, 인과론적, 기계론적 관점이 많이 제거된 것으로 보였다. 이 이론의 이런 특성들은 이후에 소위 인간주의적 입장의 간호이론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호한 방법론적 입장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임상실무에 많이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연구방법을 간호교육과 실무에 도입하였으며 연구 논문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이, 임 및 박, 1991; Meleis, 1986). 그러나 1970년에서 1979년까지 발표된 간호연구 논문을 보면 연구설계에서 실험연구와 상관성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 방법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O'Connell, 1983).

한편 1960년대의 사회학 조류가 간호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6)가 임종환자와 병원요원들의 죽음에 대한 인지 연구에서 근거이론적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을 이용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 이 방법의 간호학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예가 되었다. 그리고 간호사이며 인류학자인 Leininger(1968)는 위에 언급한 심포지움에서 간호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간호연구에 인류학의 민족지(ethnography)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팽배한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경향으로 이러한 방법은 간호계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70년대의 강력한 논리 실증주의 사조에도 불구하고 간호 지식체의 개발을 위해 Ragucci(1972)는 민속학적 접근법이, Mackey와 Schlotfeldt(Crawford, Dufault & Rudy, 1979)는 역사적 철학적 방법이, Silva(1977)는 내성(introspection)과 직관의 철학적 방법이, 그리고 Davis(1978)는 현상학적 접근법이 유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처음 제시되었을 때 별 호응을 얻지 못한 Glaser와 Strauss의 근거이론법(ground theory methodology)을 간호에 적용하자는 논문들(Simms, 1980)과 이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Chennitz & Swanson, 1986). 또 민속적 접근법을 근거로 하는 Leininger(1978)의 이론과 이 연구방법의 안내서(Leininger, 1985)도 나왔다.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인간을 부분들의 합 이상인 환원할 수 없는 존재로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견해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1979년에 각각 발표된 Newman과 Watson의 이론은 80년대에 이론가 자신들의 간호이론에 대한 견해와 연구방법을 밝히는 새로운 저서들이 출판되면서 이 논쟁에 가담하게 되었다. Newman 이론은 Rogers 이론에서 연역되어진 것이며(Newman, 1979) 방법론적으로 어떤 특정 방법을 지시하지는 않으나, 양적 방법이 아닌 질적 방법을 이용하여 패턴을 보자고 하였다(Newman, 1985). Watson(1985)도 역시 질적 방법(현상학적 접근법)을 옹호하였으며, Olier(1982: 1986), Omery(1983), Ray(1985), Parse, Coyne and Smith(1985)등도 현상학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Parse(1987)는 간호학적 지식체를 위해서 양적 방법이 아니고 다른 질적 방법론과는 구분되는 인간-삶-건강(Man-Living-Health) 방법론이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Lincoln과 Guba(1985)의 자연주의적 추구(Naturalistic Inquiry)의 접근법(박영숙, 1991), 해석학적 접근법(Benner, 1984: Reeder, 1988), 비판사회학적 방법(Allen, Benner, & Dickelmann, 1986), 여성해방론(feminism)적 방법(Campbell & Bunting, 1991)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Leininger(1992)는 소위 질적 패러다임 내에서 20개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간호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여전히 양적 방법이 질적 방법에 비해 훨씬 많았다. Moody 등(1988)은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간호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질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분석대상논문 720편 중에서 7.8%에 불과했다고 보고하였다.

Ⅲ. 간호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들

1. 방법론의 변화 시기

일반적으로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오는 논의들은 크게 다섯가지로 인간지식의 본질적 성격을 묻는 존재론적 문제, 인간의 지식 발전에 관한 인식론적 문제, 인간의 지식 가운데서 특히 과학적 지식을 구분하는 방법론적 문제,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철학적 문제, 가치판단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있다(최양부, 1991).

간호학에서 대두되는 방법론 논의는 방법론적 문제로 지금까지 주로 실증주의에 입각한 통계적 추론과 일반화 하는 양적 방법론과 그 대안으로 나온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한 질적 방법론으로 간편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

간호학 방법론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간호학계에서의 합의는 아직 없으나 이 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기 구분을 위한 첫번째 기준으로 Leininger의 작업을 들 수 있다. Leininger(1992)는 1950년대에 자신은 이미 질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민속지 접근법을 도입하는 입장 표명은 1968년에 한 심포지움에서 하였고 그녀의 이론은 1978년에야 출판되었다.

두번째, 현재 간호학에서 방법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존재론적 패러다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Rogers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0년에 출판된 Rogers이론은 최근까지 저자 자신과 동료, 학생들에 의해 세련화되고 있으며, 그 시기의 다른 이론들처럼 일반체계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근거를 진화론, 상대성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 Nightingale의 주장, 그리고 현대 과학철학자들의 입장에 두고 있다. Rogers는 인간을 부분들의 합 이상이며 부분들에 대한 지식으로 그 특성을 알 수 없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적인 4차원적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Rogers이론은 데카르트적 이원론, 뉴우튼적 기계론, 인과론을 거부한다(Rogers, 1970). 이런 비환원주의적, 전체론적 관점(holistic point of view)은 이후 Newman, Watson, Parse 이론에 영향을 주었고(Sater, 1987: Parse, 1987), 그들의 이론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Rogers(1970)는 이론이란 현상을 서술, 설명, 예측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면서 이론은 검증 절차를 거쳐 확증되거나 반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과 이 이론의 검정을 위한 방법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측정과

조작을 통한 실험적 연구를 행하는 것이 과연 Rogers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Kim, 1983). 이런 논란에 대해 Reeder(1984)는 Rogers의 철학적 입장에서 나온 4차원성이 비시공간적, 비선형적이며 부분들에 대한 지식으로는 예측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 Rogers의 검증에 대한 의미가 실증주의자들의 의미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Rogers와의 면담과 초기 저술들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Reeder는 Rogers의 개념적 체계에 대한 검증은 의미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기준, 일관성을 위한 가설연역 체계의 검증, 그리고 실제에 대한 상응(correspondence)(신체정신 이원론)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Husserl의 현상학에 근거한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Rogers의 체계 내에서 연구 방법은 아직 많은 논쟁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번째는 Rogers의 영향 아래 자신들의 이론을 개발한 Newman, Parse, Watson 등의 등장이다. 이들은 그 내용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Rogers의 모호한 입장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간호학의 방법론적 입장으로 질적 방법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tson(1979)은 간호학의 철학적 전통을 과학주의와 인본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적 혹은 행동주의자들의 견해에 대비되는 것으로, 전체로서의(as whole) 인간에 대한 연구를 주장하는 Giorgi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인간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을 주장하였다(Watson, 1985). 또한 간호학은 이제까지의 절차, 사실 그 자체, 엄격한 정의, 엄격한 합리주의, 조작주의, 그리고 변수 조작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과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방식과 대안적 견해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Watson, 1985).

간호학에서 방법론의 전환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看護學史的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본 고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서 질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방법론의 변화시기로 본다. 그리하여 한 이론 내에서 방법론을 분명히 밝힌 Parse이론과 Watson이론의 등장과 방법론 자체에 대한 논문과 저서들의 출판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80년 이 간호학 방법론의 변화 분기점이다. 즉 간호학 방법론의 변화는 1980년을 분기점으로 과학주의-양적 방법론과 인간주의-질적 방법론 두가지 맥으로 구분한다.

2. 방법론의 변화 이유

간호학은 학문의 성립과정에서 의학의 인과론적, 기계론적 모형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간호학이 아닌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학위를 받은 많은 간호사들의 배출로 간호는 다양한 분야에 노출되고 이미 확립된 이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Munhall & Olier, 1986).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기회들은 오히려 간호 고유의 지식체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었다는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간호 지식체 개발의 장애는 첫째,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간호학을 위한 유일한 하나뿐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Watson, 1981). 둘째, 실험 연구에서 선결 조건인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훈련과 방법의 검토없이 간호 지식체를 개발하도록 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다(Norris, 1982). 셋째, 간호 연구자들이 간호내에서 간호사-대상자 상황의 연구가 아니라 단지 간호사에 의한 간호연구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접학문들의 새로운 사조(일반체계이론, 적응 이론, 생태학)의 영향(Munhall & Oiler, 1986)으로 인간을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지는 존재로 정의하거나 어떤 속성들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에서, 인간은 부분들의 합 이상이며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되어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총체론적(holistic)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간호현상(인간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간호학에서 이론을 생성 혹은 발견하는 방법은 주로 근접 학문들의 이론인 욕구이론,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적응이론 등에서 유도하거나 합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이전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 방법으로 나온 것들이다(Fawcett, 1984). 물론 Orem의 이론은 이론가 자신의 임상적 경험에서 출발된 것이고(Fawcett, 1984), Barnard(1980)의 부모-아동 상호작용(parent-child interaction theory)은 이론가의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한 이론에 따라 실재가 관찰된다는 이론 부과적(Theory-ladenness) 관찰의 의미보다 더 해석되어 그 이론은 기존의 이론적 틀에 가까웠다. 이 시기의 방법은 가설 연역적이었으며 검증을 통해서 나온 인과관계의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간호학적 지식체를 구축하는 방법은 발견의 맥락이라기 보다 정당화의 맥락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관찰이 임상 실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를 토대로 하는 연구들이 행해지기는 하였지만 질적 방법론을 통한 귀납적 이론의 도출로는 나가지 못하였다. 자연과학, 특히 의학으로부터 간호학이 학문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이 시기에는 학문적인 독립을 위하여 그 응답으로 의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서 이론이나 지식체를 수용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지식에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것은 간호학적 지식체의 발견이라기 보다 정당화에 그 초점을 두고 간호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때에 정신현상 내지 심적 현상, 이 세계의 모든 상은 계량성과 인과성을 바탕으로 물리학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았다(윤명로, 1983).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현상도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고 계량성, 인과성의 바탕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간호학의 대상은 신체, 정신, 심리, 사회적 요소를 가진 존재로 환원주의적, 특수구성론적 관점(particularistic point of view)으로 보았으며, 이 각 요소에 대한 지식의 합으로 인간 전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실사 어떤 이론가들이 인간에 대한 비환원주의적 총체론적 관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이런 관점은 주로 일반체계이론에서 나온 이론들이다), 이론 검정에서는 각 부분을 분리하고 인과성에 입각하여 다루는 방법이 우세하였다.

이처럼 간호학은 지식의 과학적 체계화를 위하여 자연과학의 바탕이 되는 수학으로부터 방법론을 도입하고 과학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는 양적 방법론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론에 대한 쟁점이 일어나면서 간호학에서도 바로 그 영향을 받아 인간주의에 입각한 방법론 즉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된다.

첫째,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양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학자들은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연현상에는 가치의 구조가 개입되지 않는데 비해 사회는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의미나 가치는 본질적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현상의 연구에 자연 과학적 방법을 적

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둘째, 양적 접근 방법에서 모든 현상은 그것에 선행하는 원인이 있기에 과학의 목표는 그 원인을 밝혀내어 인과론적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요인만을 관계 없는 요인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셋째, 양적 분석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 나가며, 객관성과 경험성을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둔다. 양적 방법론자들은 사회적 사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reality)로 보고 그것들의 관계를 관찰 가능한 특성들을 가지고 검토한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현상은 원칙적으로 나타난 행동의 사실로서 환원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극과 반응의 결과로써 설명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현상은 해명되길 기다리고 있는 독립적인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은 의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은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최협, 1991).

요약하면, 간호학에서 방법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첫째, 간호학적 관점 내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구축하려는 열의와 둘째, 간호학내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received view에서 perceived view로의 변화, 그리고 셋째는 주변 학문들과 그 방법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3. 방법론에 대한 인식

이제까지 논의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론에 대한 간호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 견해는 인간(과 환경)은 부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측정가능한 속성을 지니며,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찰과 이론에서 가설을 연역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양적 방법론과 간호현상을 그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질적 방법론은 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서로 통약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한 견해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은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우선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질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순수주의자들은 질적 그리고 양적 패러다임의 탐구양상과 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들에 부수되는 방법들이 철학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에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패러다임들 간의 연구 방법을 혼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Leininger, 1992). 간호는 인간주의를 지향하며, 간호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므로 간호현상을 부분들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그 결과로 인과관계를 짐작하므로써 설명, 혹은 예측하려는 과학주의와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이다(Parse, 1987). 각각의 연구목적은 이해와 설명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적 방법론은 하나의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식이고 질적 방법론은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단순화 시킬 수 있다(최협, 1991). 설명과 이해라는 술어적 구별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Droysen이며, Droysen은 인간사회의 대상과 본질에 따라서 3가지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을 열거하였는데 첫번째로 사변적인 인식을 들고 그 다음은 수학적 물리학적인 설명을,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사고에 근거한 과학방법인 이해를 들고 있다. 여기서 자연과학적인 방법의 설명은 역사적인 방법의 이해와 대립하게 된다(박순영, 1991).

사회과학에서의 이해의 관점이 간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드러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은 그대로 간호학에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질적 방법론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 이론과 연구의 목적이 대상에 대한 이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간호 행위(중재)의 근거는 무엇으로 확보되는 것인가?

후기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Schmachter와 Gortner (1992)는 전통과학에 대하여 순수 질적 방법론자들은 3가지 점에 오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서 이론 중립적인 관찰과 절대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현 과학철학 입장에서 부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방법론자들이 이점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질적 방법론자들은 방법과 철학적 관점을 혼동하여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관점이나 기본적인 철학적 관점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전통과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학자가 행하는 작업에서 특정 질문에 초점이 되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며, 그것이 연구중인 현상을 적절하게 언급하기에 충분한 범위(scope)의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째는 보편법칙의 문제이다. 우선 보편성 그 자체의 문제로서 이는 종종 간호학이 찾는 인간 현상에 대한 맥

락적 그리고 역사적 이해에 대한 반명제로 여겨진다. 전통 과학은 연구를 위해 그것들의 맥락으로부터 현상들을 고립시켜 연구결과는 맥락 의존적이라기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철학에서 보편법칙은 물리학에서조차 얻기 힘든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특정한 연구 표본 이외의 대상자에게 일반화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분명히 가치있는 것이다. 만약 일반화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환자에게 시행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임상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 법칙과 특정 표본에 대한 일반화간의 어떤 중간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편 법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과성과 설명의 문제로, 질적 방법론자들에게 이것이 반박되는 이유는 반실재론자(antirealist)들의 주장 때문이다(Schmachter & Gortner, 1992). Schmachter와 Gortner (1992)는 간호학을 위해 설명은 인과적 상태 혹은 과정이 정확하게 중재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Schmachter와 Gortner(1992)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과학에서 질적 자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 그러나 이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은 질적 방법론자들의 것과는 다르다. 문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의 가정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자료의 선택은 방법론의 방법이나 기법에 따라 결정되며, 방법론은 그 방법론이 근거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경향에서 여전히 양적 방법론적 입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양적 방법론자들이 두 방법론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질적 방법론자들에 비해 흔하지 않다.

다른 하나의 견해로 양적, 질적 방법론의 절충 혼합자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방법론의 역할 분담론 혹은 연구 문제에 따른 방법론의 선택이다. 이런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현상에 대해 알려진 어떤 것도 없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요할 때 질적 방법론을 통해 발견된 가설을 양적 방법론을 통해 정당화하는 과정을 연속적, 순환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Munhall & Oiler, 1986; Leininger, 1992). 일부 다른 사람들은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Mitchell, 1988) 혹은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Myers & Hasse, 1989).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방법의 혼용은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서 완전히 다른 두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화합할 수 있는가? 설령 질적 방법을 통해 가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양적 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질적 방법론의 총체론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위배하지 않는 경험적 준거(empirical referent)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질적 방법론자들은 패러다임간의 방법의 혼합은 각 패러다임의 철학적 전제와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을 위배한다고 본다(Leininger, 1992). 더욱이 Leininger(1992)는 질적 연구의 목적이 이론과 개념적 틀의 생성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이론들과 개념적 모형을 체계적으로 확증 혹은 반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occia(1988)는 이런 유희적 혹은 절충적인 태도를 3가지 점에서 비판하였다. 첫째, 간호 연구 질문이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이론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질문들의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함축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차단한다. 둘째, 연구와 이론개발에서 다양한 과학 철학을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활동으로서 연구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 간호의 실체(substance)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룩하여 제시한 학문적 작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 그리고 세번째, 이런 절충에 의한 해결책은 스킨쉽(scholarship)과 연구 전통의 확인된 정책적 기능에 대한 논평을 회피한다.

그래서 한 방법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법의 선택이 아니라 문제제 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며 인식론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다. 이는 열린 체계 대 닫힌 체계의 세계관: 합법적 지식 대 비합법적 지식: 변화를 위한 힘으로서의 과학의 정의 대 현상태의 방어로서의 과학의 정의: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희망하는 간호실무 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것을 희망하는 간호실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된다(Moccia, 1988).

한 방법론 혹은 패러다임 내에서 방법의 혼용에 대한 주장은 양적 방법론자들보다 질적 방법론자들에 의해 제기된다. Leininger(1992)는 한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 방법들을 적절하게 혼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wanson-Kauffman(1986)은 유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 경험과 돌봄의 욕구를 서술하기 위해 근거이론, 민족지,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같은 질적 패러다임 내에 있는 연구 전략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 연구 혹은 동일 연구자

의 레퍼토리 내에서 어떻게 각 전략의 전제와 가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앞으로 간호학 방법론에서 검토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 양적 질적 두 방법론이 서로 통약불가능하다면 한 학문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products)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인식론과 존재론적 가정을 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이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연구 내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에서 예를 들어 질적 연구에서 발견된 가설을 양적 연구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4.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견해

많은 간호학자들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변화의 과정을 인정한다. 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과학의 방법론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 혹은 당위의 것(방법론 규범)을 말하려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설명은 현 상태에 대한 규정이자 과학으로서 간호학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inkle 과 Beaton(1983)는 패러다임 I에서 패러다임 II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Parse(1987)는 Man-Environment - Totality(MET) 패러다임에서 Man-Environment - Simultaneity(MES)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Watson(1985)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고 있으나 두 패러다임의 공존을 주장함으로써, Parse의 의미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 Munhall과 Oiler(1986), Gorenberg(1983)는 Kuhn이 말하는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 혹은 Laudan의 연구 전통의 이행(transition of research tradition)의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을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보느냐 혹은 연구 전통의 이행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이것들이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과학 철학적 입장에서 간호학의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간호학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변화를 해석하는가는 미래의 간호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하려는 것과 같다.

Kuhn(1970)은 과학 개념을 자연과학에 한정시키고 사실상 사회과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으나, 그의 패러다임 이론의 적용이 정치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 처럼(차인석, 1983), 많은 간호학자들도 Kuhn의 패러다임으로 간호학의 발전과정을 해석하려 하였다

(Hardy, 1983). 그들에게 Kuhn의 이론은 자연과학, 특히 의학이 우위를 차지하는 과학 체계의 서열에서 간호학의 위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과학(prescience)의 상태에서 정상과학의 상태로의 진입이, 개별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한 과학 총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문자 그대로 혁명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 개별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패러다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간호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간호학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나 간호학의 사회과학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간호학계 내에서 인정되므로)간에는 현저한 비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Kuhn의 패러다임을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연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론적 발견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세계의 변화에 따라 연구 절차에 변화가 생기며 인간행위로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의 이해에 패러다임이 얼마나 성공적이나 하는 것은 무엇이 합리적이고 용납될 수 있는 행위나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의 전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차인석, 1983). 또한 Meleis(1986)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을 다루는 학문에서 한 이론이 학문의 모든 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간호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연구 방법들이 사용되며 어떤 이론이나 방법도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 소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존재한다. Kuhn의 이론은 간호학에 대해서는 발전 과정(is)에 대한 설명도 규범적인 처방(ought to)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Ramos(1987)는 Kuhn의 과학혁명 모형이 간호학의 진보를 사정하고 지식 성장을 추적하며, 학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론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간호학의 가정을 평가 절하하려는 비판적 태도 혹은 경향이 있다고 Ramos(1987)는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개별 학문의 발전을 주장하는 Toulmin(1972)의 진화 모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Ramos(1987)는 Toulmin의 모형이 개념, 연구 문제,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간호학의 현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문의 지식은 생성된 설명을 통해 진화하며 이로써 발전의 정도가

사정되어지므로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 모형내에서는 간호학이 한 메타패러다임 후에 투쟁할 필요가 없고, 가장 의미있는 것은 새로운 간호사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체,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질적 방법론의 등장은 새로운 탐구 양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학문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학자들이 변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성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Ramos, 1987).

Ramos(1987)의 주장은 간호학의 현 상태에 대해 고무적이고 낙관적인 격려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모형으로 간호학의 학문으로서의 수준 혹은 상태를 사정하는 것과 학문의 추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문의 방법론 규범(당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외에는 제시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ilva와 Rothbart(1984)는 Laudan(1977)의 연구 전통 모형으로 간호학의 변화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들은 Laudan의 저서들이 오늘날 과학철학의 전위(front)를 대표하며, 그의 관점은 다른 역사주의자들과 대부분 공유되고, 그의 저서는 간호이론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논리실증주의적 입장과 역사주의적 입장(주로 Laudan의 입장)에서 과학의 요소, 과학의 개념, 과학적 진보의 사정 그리고 과학 철학의 목적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간호학에 대해 이 입장들을 대립하였다.

Laudan(1977)에 따르면 특별한 이론, 존재론적 공약(commitment) 그리고 방법론적 공약이 연구 전통을 구성한다. 이 입장에서 과학적 체계의 요소들은 다수의 연구 전통이며, 각각은 연구 전통에 본질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그것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존재론적 관점들과 탐구방법을 낳는 이론들을 포함한다. 과학은 과학을 행하는 과학자의 실행에 의해 나타내지는 인간행위와 사고의 과정으로 과학자는 진위(truth and falsity)의 견지에서 이론을 거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진보의 사정은 이론의 문제 해결 효과에 달려있다. 그래서 경쟁하는 연구전통의 이론들은 연구 중인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연구전통의 통합은 이전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각 전통의 진보적인 요소들을 추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Silva와 Rothbart(1984)는 1964년에서 현재까지 간호학 이론의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학이 현재 이행 시기

에 있음을 확인하고, 간호학 이론이 간호학의 진화와 성장에서 한 단계로 향상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 이론은 한 학문의 진화하는 역사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대표할 것이다.

Laudan(1977)의 모형으로 현재 간호학의 변화의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연구 전통의 이행에 따른 두 전통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 연구 전통이 각각의 요소들에서 어떤 주요한 수정도 없이 다른 것에 이식되거나, 둘 혹은 그 이상의 전통들 각각이 거부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희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들의 남아 있는 요소들을 조합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두 연구 전통 즉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이 통합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질적, 양적 방법론의 통합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 있다.

Meleis(1986)는 간호이론 발달의 역사를 고찰하고 과학철학에서 논의되는 과학 발달의 과정에 대한 혁명 이론, 진화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이것들은 간호학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간호학의 발전 과정은 비체계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회선적 과정(Convolutionary process)이라고 주장한다. 간호학은 정상, 침체, 우회(detours), 순환적 노선(circular paths), 단계들의 반복과 일련의 위기에 의해 진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간호학의 발달상의 특성을 8가지로 확인하였다. ① 이론들의 발달이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② 경쟁하는 관념이 동시에 수십년 동안 존재해 왔다. ③ 인간을 다루는 학문에서 한 이론이 학문의 모든 현상을 설명, 기술, 예견 그리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④ 간호는 열린 체계에서 작용하며, 항상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으며, 사회에 반응하고, 간호에서 한 이론으로의 수렴은 가능하지 않다.

⑤ 간호에는 많은 여러 영역(community)이 있으며, 하나의 경쟁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한 단위(unit)로써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며, 또한 다른 학문들 어떤 것에도 통합된 영역이 없다. ⑥ 오래된 개념과 새로운 개념들 간의 타협이 간호에 존재한다. ⑦ 변화가 있는 예에서 이전의 패러다임은 전체적으로 거부되기 보다 재정의되어 왔다. ⑧ 학문을 학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경쟁하는 이론, 경쟁하는 학파, 그리고 논쟁할만 한 관념에 의해 비롯된다. 즉 경쟁, 창조력, 혁신은 과학 성장의 특징(hallmark)이 된다. 그래서 간호는 고유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Meleis, 1986).

간호학 발전의 단계는 간호이론에 대한 초기의 거부, 최근 Nightingale의 간호개념과 건강, 환경에 초점을 둔 이론의 재검토, 60년대의 양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열중, 현상학과 같은 연구를 위한 대안적 방법론에 대한 수용 등이 회선상으로 나타난다. 발전의 이런 양상은 학문에 내재하는 발전에 대한 요구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하는 조심스런 비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Meleis, 1986).

많은 간호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입장 보다는 Kuhn(1970), Toulmin(1972), Laudan(1977)과 같은 역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간호학의 발전과정과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학자들의 이런 작업은 Meleis(1986)를 제외하고는 과학철학자들이 과학-주로 자연 과학-의 史的 발전에 대해 해은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역사주의자들의 관점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연구와 이론 개발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하며, Lakatos(1968)나 Feyerabend(1975)와 같은 다른 역사주의자들의 입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전위적이라든가 다른 학문에서 지지된다는 이유나 혹은 현재 상태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는 이유로서가 아니라, 간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잘 설명하고 지향점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과학철학적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학문인 간호학은 종래의 자연과학에서 지식탐구로 이용하는 계량화의 수단인 양적 방법론만으로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간호학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간호학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방법론 자체의 간호학 문헌들이 출판되기 시작한 1980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과학주의-양적 방법론과 인간주의-질적 방법론으로 대비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 방법론의 변화는 첫째 간호학 관점에서 고유의 지식체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열의, 둘째 인간을 총체론적(holistic)으로 보려는 인식 전환, 셋째 인간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 방법론의 영향으로 오게 되었다.

방법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 양적 방법론

(외부 설명)과 질적 방법론(내부 이해)은 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서 통약 불가능하여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과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호학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공존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호학 방법론의 변화에 대하여 혁명적 전복, 통합에 의한 전복, 연구전통의 통합, 회선상의 과정, 4양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간호학 방법론에서 변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간호학문의 과정이 어떤 관점으로 분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전복자의 관점에서 간호학은 패러다임의 전단계이고 진화론자의 관점이라면 한 학문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통합자의 관점이라면 개별 학문으로 달성된 것이다(Meleis, 1991).

간호학 방법론의 해명에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만 대비하는 것은 간호학의 인식론과 존재론 등의 철학적 관점을 규명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학문 방향 설정이 어렵다. 앞으로 간호학문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철학의 논리적 흐름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법론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은 철학, 패러다임, 이론, 방법론에서 일원론이 아니라 다원론(pluralism)에 의해 발달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다양성을 갖고 간호지식이 축적되어질 때 실천의 문제가 야기된다. 과학적 다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 영역에 있어서 간호과학으로부터 전달받는 지식이 복수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원론으로 인하여 인간현상에 대한 경쟁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모순적인 처방이 생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혼란없는 실천을 위하여 간호지식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실무에서 간호지식을 어떤 방법론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호학내의 공유된 합의도 없다. 그러나 간호학의 존재의의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유력한 합의는 다원론(pluralism)의 수용이다. 그러나 아직 간호학자들에게 다양한 방법론에 노출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없었으며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것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 기반을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의 간호학에서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우열을 가리고 어느 한가지를 배척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Allen(1986)은 우리가 건강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간호학의 지식 개발을 위해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오히려 간호학 방법론을 위해 우리가 해온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제언으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방법론의 근거가 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들에 대해 숙고하고, 과학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일 외(1991).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 김여수(1983). 진리의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학위논문.
- 박순영(1991). 사회과학 방법론과 해석학, 김동일 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 윤명로(1983). 과학의 개념,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영부(1991). 간호사, 서울: 수문사.
- 이영호(1983). 변증법 철학,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상철(1983).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은옥·임난영·박현애(1991). 간호 의료 연구와 통계 분석, 서울: 수문사.
- 차인석(1983).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최양부(1991). 사회과학을 위한 방법론적 결단, 김동일 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 최 협(1991). 계량적 접근과 질적 접근, 김동일 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 Allen, D.G.(1986). Using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methodologie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health. In P.L.Chinn(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Implementation*. Rockville, Maryland: An Aspen Publication.
- Allen, D., Benner, P., & Diekelmann, N.(1986). Three paradigms for nursing research: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P.L. Chinn (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Implementation*. Rockville, Md: Aspen Publi-

- cation.
- Barnard, K.E.(1980). Knowledge for Practice : Directions for Furture, *Nursing Research*, 29(4), 208–212.
- Benner, P.(1984). *From Novice to Expert*, Menlo Park, California : Addison–Wesley.
- Campbell, J.C. & Bunting,S.(1991). Voices and Paradigm : Perspectives on critical and feminist theory in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3(3), 1–15.
- Chenitz, W.C. & Swanson, J.M.(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Menlo Park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Crawford, G., Dufault, S.K. & Rudy, E.(1979). Evolving Issues in Theory Development, *Nursing Outlook*, 27(5), 346–351.
- Davis, A.(1978).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In N. Chaska(ed), *The Nursing Profession : View through the Mist*, New York : McGraw–Hill.
- Dickoff, J., & James, P.(1968). A Theory of Theories : A Position Paper, *Nursing Research*, 17(3), 197–206.
- Dickoff, J., & James, P. & Wiedenbach, E.(1968). Theory in Practice Discipline : Part I, Practice Oriented Theory, *Nursing Research*, 17(5), 415–435.
- Goodwin, L.D. & Goodwin, W.L.(1984). Qualitative Vs.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Research*, 33(6), 378–380.
- Fawcett, J.,(1984). Rogers's life process model. In *A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ceptual Models of Nursing*. Philadelphia : F.A. Davis Co.
- Field, P.A. & Morse, J.M.(1985). *Nursing Research :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Maryland : Aspen.
- Feyerabend, P.(1975). *Aganist Method :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NLB.
- Glaser, B.C. & Strauss, A.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 Glaser, B.C. & Strauss, A.L.(1968). *Awareness of Dying*, Chicago : Aldine.
- Gorenberg, B.(1983). The Research Tradition of Nursing : An Emerging Issue, *Nursing Research*, 32(6), 347–349.
- Hardy, M.E.(1974). Theories : Components, development,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3, 100–107.
- Hardy, M.E.(1983). Metaparadigm and theory development. In Chaska,N.L.(ed). *The Nursing Profession : A Time to Speak*. New York : McGraw–Hill.
- Jacox, A.(1974).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n Overview, *Nursing Research*, 23, 4–13.
- Kim, H.S.(1983). Use of Rogers's Conceptual System in Research : Comments, *Nursing Research*, 32(2), 89–91.
- Kuhn, T.(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 Lakatos, I.(1968). Changes in the problem of inductive logic. In I.Lakatos(ed). *The problem of inductive logic*,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 Laudan, L.(1977). *Progress and its problems : Toward a Theory of Scientific Growth*.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ininger, M.(1968). Conference on the Nature of Science and Nursing : Introductory Comments, *Nursing Research*, 17(6), 484–486.
- Leininger, M.(1978).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 Theories, and Practice*, New York : A Wiley Medical Publication.
- Leininger, M.(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ew York : Grune & Stratton Inc.
- Leininger, M.(1992). Current issues, problems, and trends to advance qualitative paradigmatic research methods for the fut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4), 392–415.
- Lincoln, Y.S. &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Meleis, A.I.(1986). *Theoretical Nursing : Development and Progress*, Philadelphia : J.B. Lippincott.
- Meleis, A.I.(1991). *Theoretical Nursing : Development and Progress*, 2nd ed, Philadelphia : J.B.

- Lippincott.
- Moccia, P.(1988). A critique of compromise : Beyond the methods debat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0(4), 1-9.
- Moody, L.E., Wilson, M.E., Smyth, K., Schwartz, R., Tittle, M., and Cott, M.L.V.(1988). Analysis of a Decade of Nursing Practice Research : 1977-1986, *Nursing Research*, 37(6), 374-379.
- Munhall, P.L. & Olier, P.(1986).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Norwalk, Connecticut : Applenton-Century-Crofts.
- Murphy, J.F.(1971). Introduction. In J.F. Murphy (ed), *Theoretical Issues in Professional Nursing*, New York : Applenton-Century-Croft.
- Myers, S.T. & Haase, J.(1989). Guidelines for integr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Nursing Research*, 38(5), 299-301.
- Neuman, B.(1982). The Neuman Systems Model, Norwalk, Connecticut : Applenton-Century-Crofts.
- Newman, M.(1979).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Philadelphia : F.A. Davis.
- Newman, M.(1985).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t. Louis : The C.V. Mosby Co.
- Nightingale, F.(1859). *Notes on Nursing*,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 Norris, C.M.(1982). *Concept Clarification in Nursing*, Rockville, Maryland : An Aspen Publication.
- O'Connell, K.A.(1983). Nursing Practice : A decade of research. In N.L. Chaska(ed), *The Nursing Profession : A Time to Speak*, New York : McGraw-Hill Book.
- Oiler, C.(1982).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31(3), 178-181.
- Oiler, C.(1986). Phenomenology : The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 Parse, R.R.(1981). *Man-Living-Health : A Theory of Nursing*, NY : A Wiley Medical Publication.
- Parse, R.R. Coyne, A.B. & Smith, M.J.(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Bowie, Maryland : A Prentice-Hall Publishing Co.
- Parse, R.R.(1987). *Nursing Science : Major Paradigms, Themes and Critique*, Philadelphia : W.B. Saunders Co.
- Polkinghorne, D.(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utnam, P.A.(1965). Conceptual Approach to Nursing Theory, *Nursing Science*, 3, 430-442.
- Ragucci, A.T.(1972). The Ethnographic Approach and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21, 485-490.
- Ramos, M.C.(1987). Adopting an evolutionary lens : An optimistic approach to discovering strength in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0(1), 19-26.
- Reeder, F.(1984). Philosophical Issues In The Rogerian Science of Unitary Human Being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2), 14-23.
- Reeder, F.(1988). Hermeneutics, In B. Sater(ed), *Paths to Knowledge : Innovative Research Methods for Nursing*,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Rogers, M.(1970).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Philadelphia : F.A. Davis Co.
- Rogers, M.E.(1980). Nursing : A Science of Unitary Man, In J.P. Riehl and C. Roy,(ed), *Conceptual Models for Nursing Practice* (2nd ed). New York : Applenton-Century-Crofts, 329-337.
- Roy, C. & Robert, S.(1981).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n Adaptation Mode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Roy, C.(1984). *Introduction to Nursing, An Adaptation Mode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Sarter, B.(1987). Evolutionary Idealism :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Holistic Nursing Theor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2), 1-9.
- Schumacher, K.L. & Gortner, S.R.(1992). (Mis) Conceptions and Reconceptions about Traditional Sc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4(4), 1-11.
- Smith, M.J.(1986). Human-Environment Process : A Test of Roger's Principle of Integralit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1), 21-28.

- Silva, M.C.(1977). Philosophy, Science, Theory : Inter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for Nursing research, *Image*, 9, 59–63.
- Silva, M.C. & Rothbart, D.(1984). An Analysis of Changing Trends in Philosophies of Science o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nd Test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2), 1–13.
- Simms, L.M.(1980).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30(6), 356–359.
- Simon, H.M.(1971). Logical Empirical Approach to Developing a Body of knowledge, In J.F. Murphy(ed), *Theoretical Issues in Professional Nursing*,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ofts.
- Swanson–Kauffman, K.M.(1986). A Combined Qualitative Methodology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58–69.
- Tinkle, M.B. & Beatson, J.L.(1983). Toward a New View of Sceince : Implications for Nursing Research, *ANS*, 5(2), 27–36.
- Torres, G.(1986). *Theoretical Foundations of Nursing*, Norwalk, Connecticut : Appleton–Century– Crofts.
- Toulmin, S.(1972). *Human understanding*,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tson, J.(1979).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 Little Brown.
- Watson, J.(1985). *Nursing :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onnecticut : Appleton–Century–Crofts.

– Abstract –

Reflection on Nursing Methodology

Lee, Eun Joo* · Park, Young Sook**

Quantitative methodology has been the

predominant methodology utilized in research in nursing. However since the 1970s qualitative methodology has also emerged as a useful methodology and has been utilized by many researchers. But in the use of this methodology, the philosophical, epistemolog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s have been neglected by many researchers. This paper repor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methodolog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used in nursing,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It explains why qualitative methodology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thodology in nursing and discusses how the qualitative methodology differs from the quantitative one. A comparison of the two is made based on perspectives of humane being and human behavior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This paper also presents several views on change in nursing science, since viewpoint not only influences the determination of the current stage of nursing science but also the shaping of the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science and research. Scientific revolution by Kuhn,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by Toulmin, the transition of research tradition by Laudan, and convolutionary processes are presented. However, this paper indicates that it is too early to adopt these points of view, because the history of nursing science is too short. It suggests that nursing needs pluralism in philosophy, paradigms and theory, as well as in methodology. Although we experience paradoxes in adopting different perspectives in nursing, it is wise for us to continue to include a variety of viewpoints including those to which we are not accustomed, such as qualitative methodology, since we are not yet able to decide what is best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 Halla Junior College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